

한국불교 달라지고 있다

외형 신장·신도의식 한층 성숙

요인

한국 불교의 변화에는 '외풍'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종교계에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가톨릭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2일 주례 강론에서 '인터넷의 바다에 뛰어들어 가톨릭 교회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강조했다.

통신과 정보 기술 진보의 산물인 '인터넷'은 새로운 포교 공간일 뿐 아니라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로서 여러 형식의 도구로도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앞둔 포교 환경의 변화와 각 종교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치열한 포교 경쟁 등에 직면한 한국 불교계는 새로운 활로 찾기를 압박당해 왔다.

한국 불교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부추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바깥은 안에서 일고 있다.

정부 인구센서스를 보면, 전체 종교 인구는 늘어나지만 종교 인구 중 불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소폭이나마 줄어들고 있다.

또 96년 이후 새로 등록하는 신도 수 역시 감소 추세다. 신도 증가율과 유년·청소년 불자의 감소라는 현실 앞에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신도들의 고학력 추세 역시 변화의 주 요인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 해 전국 60개 불교교양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신도 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포교사 고시 합격자의 51.6%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 고학력화는 신도 교육 체제의 변화와 함께 신도 의식의 성숙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변화의 목소리를 높이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지난 해 해인사 청동대불 조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의들은 대형 불사, 불사제 입주에 대한 숙고를 통해 '불사'에 대한 인식부터 변화하라는 각인 시켜 주었다.

양상

94년 조계종 종단개혁이후 한국불교는 조계종 사태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신도 의식 수준 향상, 직장직능 불

교 확산, 수행 열기 고조, 사회 참여 확대 등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 중 눈에 띄는 변화는 직장 불교의 확산과 사회참여 확대를 들 수 있다. 직장불교의 확산은 직장 내 불심을 하나로 모으고 신행의 변화를 가져왔다. 금융 위기 이후 일부 단체들이 활동을 중단하는 등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공무원 불자회, 경찰불교회, 철도청 법우회 등을 중심으로 직

신도들의 신행형태 변화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기복 위주의 신행이 감소하고 수행열기 고조, 경전 공부 모임 확산, 불교교양대학 활성화 등 신행 형태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이는 재가자 안거 동참, 수련회 정착과 비 불자들의 수련회 참여 확

산, 포교활동 증가 등으로 이어졌다. 이 밖에도 신도교육 강화, 사이버불교 확산, 사회복지활동 증가 등의 변

다. 과거 10년 전인 1993년과 비교하여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도교육 기관인 불교교양대학은 77개에서 260여 개로, 불교NGO 단체를 포함한 신행단체가 436개에서 1,100여 개로 늘어났다.

전국의 불교교양대학은 지난 2월 19일 조계종 포교원이 신도전문교육 기관으로 인가한 서울 조계사불교대학, 경기불교대학, 부산불교교육대

전국불교운동연합,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 등 12개이었던 불교NGO 단체가 우리는 선우,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불교환경연대 등의 단체가 새로 생겨나면서 20여 개로 늘어났다. 또한 1996년에 180여 개이었던 직장직능 신행단체가 350여 개로 두 배가량 늘어 남태다 육해공군군단,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조계종전국포교사단, 대한불

주5일 근무 등 포교환경 변화

등록신자, 어린이·청소년불자 감소추세



삽화·김영민

기복서 수행·봉사 등으로 다양화

신도 고학력 추세...변화 요구 목소리

장 내 불자회 창립 '봄'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회원들의 소극적인 참여와 단순한 법회 프로그램, 재정 빈약 등은 직장불교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 보호, NGO활동 강화 등 사회 참여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지리산 관동도로 저지, 해인골프장 저지 등 성과를 얻었으며, 새 만금 간척 반대, 북한산 관동터널 반대, 국·도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 반대 등 현안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회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존의 학생회, 청년회 등 젊은 불교의 상징이었던 단체들은 눈에 띄게 세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들 단체들은 회원 감소, 대외 활동 약화, 영향력 감소 등 급격히 활동력이 저하돼 미래불교를 이끌 젊은 불자 양성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학, 불국사불교대학, 광주불교대학, 제주불교대학 등 42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6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불교교양대학 현상은 지난 1973년에 불교계 최초로 설립된 대원불교대학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고 있어, 지난 93년 77개이었던 것에 비해 3.5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행단체 역시 93년 430여 개에서 1,100여 개로 3배가량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불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교경승단 등 22개이었던 전국단위 연합단체가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공무원불자연합회 등 60여개로 늘어났다.

또한 청년회 단체의 경우,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불교대학생연합회, 각 주요 종단 청년회 등의 전국단위 청년회가 활동하고 있다. 특히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밖에 없던 청소년연합단체에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비로자나청소년연합회 등이 생겨난 것은 주목할 만 점이다.

권형진·박봉영·김철우 기자

교세

한국불교의 외양도 달라지고 있

한국불교 어떻게 변해야 하나

◎종단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세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을 확보해 내는 것이 근본이다.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 그러한 비전에 동참하는 큰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종단들은 각각 추상적인 비전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것들이 현대 문명에 대한 소극적인 비판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적극적인 대안 제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불교 토라는 개념을 우리 현실 속에 가까이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출가자 중심의 종단에서, 사부대중이 여법하게 어울려져 각각의 역할을 하는 좀 더 큰 몸의 종단을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불교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조계종의 경우

어지고, 일정 부분이 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단지 스님과 신도들이 활동공간이라는 개념을 벗고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불교의 사회화'에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사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는 사찰의 수행 환경 보호를 통해 수행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수행의 요람으로 남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도들에 대한 교육의 체계를 갖추어 보다 질 높은 신도들을 길러내는 교육장으로서의 역할도 갖추어야 한다.

◎언론

불교 언론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정보화 사회로 진행하면 할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교계의 언론은 타 종교와 비할 때 여전히 너무나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가

종단 비구니위상...재가자 참여·역할 제고

사찰 불교사회화 전진기지로 거듭나야

언론 인터넷 확충...교계 새흐름 이끌어야

여전히 출가자 중심의 모습을 고수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재가자의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는가가 하나의 큰 과제라 하겠다. 또한 출가자 중심의 종단 구조에도 비구니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출가자들의 공동체는 하나의 이상적인 공동체로서 재가자들이 모델 삼는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찰

사찰이 수행과 포교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사찰이 있는 위치 등과 관계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앞으로 출가 승려 수가 점점 감소할 것을 예상한다면, 사찰의 운영과 관리 체계도 재가자들이 일정 부분을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공동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장기적 안목에 의한 사찰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하는 데는 '사찰재정 투명화 운동' 등과 연결하여, 사찰의 운영이 좀더 공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

운데도 그동안 교계의 신인들이 불교의 근대화를 위해 제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 하다. 보다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프로그램과 보도의 질을 높여야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러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불교 언론이 종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지녀야 한다. 불교 언론이 교계를 위한 건전하고도 객관적인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독립적 재정 구조를 갖기 위한 범종단적 지원과 제도정비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언론이 정보화 사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망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보다 많은 다수와의 양방향 교통이라는 틀을 통해 불교를 바꾸어 나가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Advertisement for Hanmaum Seonwon (한마음선원)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including USA, Canada, Argentina, Germany, and Thailand.